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과 비다문화가정(한국인 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 비교 연구

김 혜 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 혜 진

(서울대학교 시간강사)⁺⁺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비교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여러 혼동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다문화/비다문화 가정 아동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비교함으로써 두 집단간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은 평균적으로 비다문화 가정에 비해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매칭방법을 통하여 개인과 가족특성, 부모의 양육방식의 특성을 조정한 이후에는 두 집단 간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부/모를 가진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특성이 이들의 학교생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주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약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는 자아탄력성과 긍정적 양육방식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키는 개입의 필요성과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를 포괄하는 개입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다문화가정, 비다문화가정, 학교생활적응, 매칭

+ 주저자

++ 교신저자

1. 연구의 목적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면서 한국사회는 더 이상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사회가 아닌 다민족,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59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사회의 주요 관심대상이 되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역시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다.¹⁾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은 2000년대부터 집중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연구 대상의 범위가 외국인배우자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연구는 그 내용과 범위에 있어 활발히 실행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약 2,000편의 연구²⁾가 출판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연구 중 많이 연구되는 주제는 이들의 학교생활적응으로, 자녀의 학교적응 실태부터 이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규명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다(안은미, 2007; 이영주, 2008; 고유미·이정윤, 2009; 박계란·이지민, 2010; 박명숙·송사리, 2010; 변은주·심혜숙, 2010; 은선경, 2010; 최성보, 2010; 2011a; 2011b; 황성동·박은혜, 2010; 남상아·백지숙, 2011; 김영춘·이관식, 2013).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이 유독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뤄지는 이유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이중문화에 속한 부모 아래 문화적 갈등을 경험할 확률이 높고, 언어 구사력이 또래 한국인 자녀에 비해 떨어지며, 사회적 차별 및 편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이 일반 가정의 자녀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되기 때문이다(박계란·이지민, 2010). 예로, 이영주(2007)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교 및 사회에서의 적응 수준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김갑성(2008)은 일반 가정과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학교생활에서도 문제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즉, 많은 연구들이 다문화가정이라는 독특한 배경은 자녀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은선경, 2010). 그렇다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실제 학교생활 적응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부적응 혹은 어려움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다문화가정이 아닌 비다문화가정 자녀들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적응을 보이거나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이 보고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의 대다수는 학교적응에 대한 기준점 없이 단순히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만을 보고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소수집단으로서 다문화가정이 가질 수 있는 취약점과 어려움을 기본 전제로 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연구의 전개와 결과는 자칫

1) 2012년을 기준으로 약 283,224명의 외국인 배우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이 한국인 배우자와 꾸리는 다문화가정은 총 266,547가구로 집계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최근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50년의 외국인배우자의 수는 현재의 약 8배 이상이 될 것이라 예측되며, 한국사회 구성원 중 20명 중 한 명이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 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이삼식 외, 2010).

2) 2013년 2월 기준으로 RISS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문화 아동' '다문화 자녀'라는 주요 단어로 검색했을 시 나오는 학술논문의 수를 말한다.

잘 못하면 해석의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즉,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 자녀 간의 적응수준을 비교 탐색하는 절차가 누락된 상태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학교적응에 있어 취약한 집단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낙인(stigma)과 선입견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교 집단이 되는 비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수준을 같이 탐색할 필요가 있다. 실제 두 집단의 적응수준을 비교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연구가 적응수준의 평균값을 비교하고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약성을 지지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이지애, 2008; 전경숙, 2008; 김은영, 2009; 김아영·김수인, 2011; 최성보 외, 2011). 하지만 이들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 간 차이를 추정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정확할 수 있다. 이아름(2012)의 경우, 위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통제한 후 다문화가정 여부가 학교적응수준과 관계가 있는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고, 그 결과 실제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 간의 학교생활수준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이전 연구에서 밝혀내지 못한 다문화가정 자녀와 비다문화가정 자녀 간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진일보한 연구결과이지만,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을 유의표 집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이런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었으며, 전국 아동·청소년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을 활용하고, 다변량 분석 방법 중 매칭(matching)을 사용하여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질문은 “다문화가정 자녀는 비다문화가정 자녀와 비교했을 때, 학교생활적응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가?”이다.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 자녀를 비교 탐색함으로써 실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적응에 있어 “고위험군 부적응” 집단인지 실증적으로 검증해보는 것은 앞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연구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향후 정책 및 서비스 수립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고찰

1)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취약집단인가?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은 266,547가구로 추정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평균자녀 수는 0.9명으로 자녀가 1명인 가구가 약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여성가족부, 2013).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한국인 부모로만 구성된 가정과는 다른 문화적 요소를 가졌고 이것이 이들의 적응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다문화가정 관련 연구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다. 예로, 이석형(2008)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외모차이에 의한 차별 및 놀림 때문에 등교 거부 및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크며, 외국인 어머니와 이중문화로 인한 자아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고 이로 인해 비행 및 반사회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으며, 부적응자로 발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부모의 다른 문화적, 민족적 배경은 부모 간의 일치되지 않은 양육방식을 야기할 수 있으며, 가정 내 이중문화는 자녀로 하여금 문화적 갈등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논의는 외국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Whaley와 Francis(2006) 역시 다문화가정 자녀와 같은 이중문화에 속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비다문화가정 자녀(monoracial children)에 비해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다문화가정 자녀는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도 취약한 집단인가? 최성보(2011b:262)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비다문화가정의 자녀보다 “태생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열악한 환경에 처한 것이 현실”이라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이 열악한 환경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분명 비다문화가정 자녀와는 다른 성장 배경과 독특한 경험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자녀가 반드시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문제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 2012년 다문화가정 실태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약 75%가 학교 공부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한국어 능력도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3).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생활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기록되고 있으며(한국교육개발원, 2008 : 변은주·심혜숙, 2010에서 재인용), 학교적응수준도 낮지 않게 보고되며(전경숙, 2008), 행동문제 및 부적응 정도도 일반 아동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노충래·홍진주, 2006).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과 비다문화가정의 아동을 비교한 이아름(2012)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여부는 학교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두 집단 간의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다문화가정 자녀의 적응양상에서 예측되거나 우려되는 문제는 반드시 이들이 다문화가정 배경, 즉, 외국인 부모와 한국인 부모를 가졌다는 사실로 설명되지 않을 수 있다. Shackford(1984)는 오히려 다문화가정 혹은 이중인종(biracial)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들의 가족을 불안정하고 병리적으로 바라보는 외부인들의 시선과 편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 아동·청소년들이 보이는 여러 문제들은 발달과정에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부분이거나 이들의 이중문화 혹은 이중인종 배경과 무관한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오히려 사회복지사와 교사들이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문제를 이들의 다문화, 다중인종배경과 연결시켜 사고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중인종 자녀와 같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부정적 발달양상과 적응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는 궁극적으로 이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생성해내고 유지,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사회의 병리적인 집단으로 라벨링(labeling)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Nakashima, 1992). 실제 국내 대다수의 다문화가정 내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지 않고, 경제적으로 빈곤하며, 이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교육 및 방과 후 활동과 관련된 부모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을 감안할 때,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은 단순히 다문화가정 배경으로만 설명될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탐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탐색함에 있어, 일차적으로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는 비다문화가정 자녀와의 비교를 통해 적응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매칭 방법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비다문화가정 자녀들을 기준으로 비교함으로써, 실제 유사한 환경 및 조건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수준이 낮게 나타나는지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당연한 현실로 이해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의 어려움, 부적응이 실제 이들의 '현실'인지, 혹은 오류인지 가늠하고,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은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연구에 중요한 영역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이는 학교가 교사와 친구와의 관계 형성 뿐 아니라 향후 사회적 기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환경이며,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해주는 발달 상 매우 중요한 장이 되기 때문이다(은선경, 2010).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전환되고,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면서 아동의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은 아동에게 중요한 발달과제가 되며(Shek, 1997), 총체적인 심리사회적 적응의 지표로 인식되기도 한다(은선경, 2010). 학교생활적응은 즉, 학교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욕구에 맞게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모든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세부적으로 수업 및 학습활동에서의 적응,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에서의 적응, 학교 규칙 준수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황성동·박은혜, 2010).

3)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Desforges와 Aboucharr(2003)은 부모, 확대가족, 또래집단과 같은 친밀한 관계 속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아동이 접촉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교회 등), 그리고 자녀의 개인적인 성향 및 능력에 따라서 학교생활 적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 이민가정 자녀 및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연구에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파악되고 있는 요인은 가족기능과 자아탄력성이 있다. 특히 가족기능 중 부모의 양육태도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발달 및 적응 연구에 있어 중점적으로 연구되는 변인으로, 대부분 위험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문화적 특성에 따라 일관적이지 못한 양육태도를 보일 수 있고 이런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육태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자녀의 경우, 성장과정에 있어 많은 갈등과 혼란 등 적응 상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남상아·백지숙, 2011).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적응에 있어 위험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는 변인이라면, 동시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인에 대한 고찰 또한 필요하다. 최근 들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파악되는 요인으로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있다. 자아탄력성이란 “개인의 감정 차원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대해 좌절하지 않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능력”(Block and Block, 1980: 차유림, 2000: 15에서 재인용)으로, 위험요인에 노출된 아동이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보호적 기제라고 볼 수 있다.

(1) 부모의 양육태도

가정은 개인이 태어나 가장 먼저 접하는 사회적 환경일 뿐 아니라 개인의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심리적 환경이 된다(Shek, 1997). 특히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개인의 심리, 사회적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향후 아동이 형성하게 되는 다양한 대인관계의 모델이 되고, 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터득하며,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는 매우 중요한 틀이 된다(박계란·이지민, 2010).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떻게 양육하는 가는 자녀의 자아개념 형성 및 성장, 발달 및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양육태도란 부모 혹은 주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나타내는 일반적인 외현적 및 내현적 행동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정의해주고, 자녀의 성격 형성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Baumrind, 1991).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학업 성적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부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Kurdek and Fine, 1994). 예로, 과보호적인 어머니 아래 자란 아동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우울 및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며(오동제 외, 1993), 애정적이고 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부모의 자녀의 경우, 문제행동을 경험할 확률이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하영희, 2003).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교생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라고 지각하는 아동의 경우 학교적응 역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teinberg et al., 1991; Shek, 1997; Schaller et al., 2007). 초기 청소년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 삶의 만족을 연구한 손보영 외(2012)의 연구에서 역시 부모가 애정적이고 감독하는 태도(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 및 또래관계에 대해 잘 아는 정도)를 가질수록 아동의 학교적응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Steinberg 외(1991)의 연구에서 역시 부모가 민주적이고 애정적이며,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아동의 경우 학업성취 및 심리사회적응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 반대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자녀의 경우, 문제행동을 보이고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보이는 등,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하명선·이순복, 2009; 김영춘·정민숙, 2012).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교 적응 간의 관계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일치되게 보고되고 있다. 예로, 멕시코 이주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교성취도를 연구한 Schaller 외(200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관심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성취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였으며, 국내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환경을 연구한 신효선(2007)은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교적응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학교부적응과는 부적의 관계를 가지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더 나아가, 대구 지역 다문화가정 자녀를 연구한 황성동과 박은혜(2010)의 연구에서도 역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건강한 자아 존중감 형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태도가 긍정적이라고 지각한 자녀일수록 자아존중감도 높고, 학교적응수준도 높다는 것이다. 부모 모두의 양육태도를 살펴본 박계란과 이지민(2010)의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학교적응을 구성하는 학교에 대한 흥미도와 학교 규범 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발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동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아동청소년기에 자아탄력성은 아동이 변화 및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잘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 된다(강부자 외, 2012).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유사한 스트레스 사건 및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결과적으로 다른 심리적, 사회적 양상을 보이는 개인들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이해되어 왔으며, 실제 학대, 이혼, 폭력 등에 노출되었던 개인의 적응양상의 차이와 이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Haskett et al., 2006).

또한 자아탄력성은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도 관련되어 연구되어 왔는데, Block과 Kremen(1996)은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긴장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인 것을 고려했을 때,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주장하였다. 이는 Scales 외(2003)의 연구에서도 지지되는데, 실제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높은 학업성취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캘리포니아 주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연구한 Hanson과 Austin(2003)의 연구에서 역시 높은 수준의 탄력성을 가진 고등학생들이 높은 성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도 한부모 가정의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연구한 강부자 외(2012)의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은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결과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을 연구한 윤미아(2008), 변은주·심혜숙(2010) 및 김영춘·이관식(2013)의 연구에서도 발견되는데, 예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가족지지, 학교생활의 관계를 연구한 변은주·심혜숙(2010)은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 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특히 학교규칙 준수와 학교수업 영역에 있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설명하였다.

(3) 인구사회학적 요인

두 집단 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보다 면밀히 비교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과 더불어 학교생활적응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학교생활적응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로는 성별, 거주지역(도시 vs. 농촌지역), 부모의 교육수준과 더불어 가족의 경제적 상황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로, 이지애(2007)는 성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했으며, Tinklin 외(2001)의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높은 적응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

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연구한 이아름(2012)과 황성동과 박은혜(2010)의 연구에서는 성별이 유의한 변인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거주 지역 역시 학교생활적응과 상관성이 있는 변인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Darling(2005)의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 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적응수준이 도시 학교의 학생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에 국내 연구에서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적응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발견되고 있다(최옥희·김용미, 2008). 부모와 관련된 변인 역시 학교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먼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수준 및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Stanley et al., 2008), 가족의 경제적 수준 역시 높을수록 학교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홍정미, 2008; Williams, 2009; Stanley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수준 차이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위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중 초4패널과 중1패널 1차년도(2010년) 자료를 통합하여 활용하였다. 이 패널은 7년간의 종단적 연구를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2009년 4월 기준 전국 초등학교 4학년 및 중학교 1학년 아동 중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법으로 각기 95개, 78개 학급을 선정하여 학급의 아동과 부모를 조사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다문화 가정 여부(다문화=1)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초 4패널 37명, 중 1패널 28명이 다문화 가정으로 확인되었다.

전국다문화가정실태조사와 같이 다문화 가정 및 아동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었으나, 다문화와 비다문화 아동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다문화 아동 사례 비중이 2%에 미치지 못하지만 다문화 아동과 비다문화 아동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어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연구 방법

다문화 여부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 수준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추정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두 집단의 평균차이를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여부를 결정하는 관측 불가능한 요인과 결과 변수인 학교생활적응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선택 편이(selection bias)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손병돈, 2011), 평균 비교를 통한 추정은 한계를 갖는다.

다문화 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량의 균형(balance)을 맞추는 방법의 하나는 널리 활용되는 OLS 추정이다. 본 연구의 다중회귀분석 모델은 학교생활 적응을 종속변수로 하고 다문화 아동 여부

와 더불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탄력성, 양육방식, 부모의 교육수준과 거주지역 등의 가족배경 변수를 포함시켜 구성하였다.

Guo와 Fraser(2010)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실 세계에서는 모든 혼동변수들이 실질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OLS 추정치가 불편추정치가 되기 위한 기본 가정들이 만족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본 분석과 같이 집단의 수가 매우 적으면서 다른 집단과 혼동변수 값이 유사하지 않을 때, 소수 집단의 혼동변수 값을 다른 집단의 혼동변수 값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평균회귀(regression toward the mean)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김현식·문혜진, 2012). 따라서 집단간 공변량을 실험성 있게 통제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이 필요한데, 이 중 하나가 바로 매칭방법이다. 매칭은 다문화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비다문화 아동을 선택하여 다문화 아동이 비다문화일 때의 가상적(conuterfactual) 결과를 대체하여 혼동변수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

매칭 기법의 발달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GenMatch 방법을 사용했다. 널리 활용되는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의 경우 적절한 성향점수 모델의 설정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Sekhon, 2011:10-13). GenMatch 방법은 유전자 검색 알고리즘(evolutionary search algorithm)을 적용한 것으로 각 변수에 상대적인 가중치를 부여하여 성향점수 모델 설정 없이도 자료 전체의 최적 균형을 도출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GenMatch에는 R 프로그램(버전 2.15.2)을 활용하였다(Sekhon, 2011). 매칭을 통해 혼동변수 영향력을 최소화한 다문화 아동 여부의 평균 효과를 추정할 수 있으며, 매칭 이후 과정으로서 매칭된 사례를 활용한 다변량분석을 수행할 경우 편의가 없는 집단간 차이 추정이 가능하게 된다(Guo and Fraser, 2010). 매칭을 통해 집단간 공변량의 균형을 확보하였다더라도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다문화 여부의 영향력을 추정할 필요가 있으며(Dehejia and Wahba, 2002), 본 연구에서도 매칭 후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다문화 사례수가 적어 독립 변수의 결측으로 인한 사례의 유실은 분석의 가능성을 크게 제한한다. 따라서 다중대체를 통해 사례의 유실을 막고자 하였다. 제시된 결과 중 기초적인 통계는 원자료를 사용하였고, 회귀분석과 매칭에는 다중대체된 20개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다중대체와 통합분석에는 STATA(버전 12)를 활용하였으며, 모든 분석에는 패널에서 제공된 기본가중치를 적용하였다.

3) 변수의 측정³⁾

(1) 다문화 가정 여부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은 부모 조사 설문에서 ‘해당 학생의 가정은 다문화 가정입니까?’를 묻고 있으

3) 척도에 대한 설명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초4 패널 1~2차년도 User's Guide』 및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1 패널 1~2차년도 User's Guide』 수록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며, 문항에 대한 설명으로 “다문화 가정”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노동자 가정, 새터민(탈북자) 가정, 중국 조선족 가정 등을 말합니다.”라고 표기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측정하였다.

(2) 학교생활 적응

학교생활 적응은 학습활동, 학교규칙 준수, 교우 관계, 교사 관계 각 5개 문항 총 20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민병수(1991: 정화실, 2009에서 재인용)가 초등학생용으로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 중 학교행사 관련문항(5문항)을 제외하고 수정, 보완하여 구성된 척도이다. 학교생활 적응 척도는 ‘학교 숙제 등을 빠뜨리지 않고 한다’,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로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 수준이 높도록 부정적 질문의 문항을 제외한 문항들을 역점수화하였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868이었다.

(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a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유성경·심혜원(2002)이 번역한 뒤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한다.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등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도록 역점수화하여 측정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0.848이다.

(4) 가구 및 부모 특성 변수

① 가구의 경제적 수준

가구의 경제적 수준은 욕구소득비, 빈곤 여부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과 가구원수 정보가 필요한데,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에 정확한 가구원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가족 구조 항목에서 부모의 수(양부모/한부모)가 조사되었고 형제자매 수 항목이 존재하지만, 조부모가 있는 경우 정확한 인원을 알 수 없으며 친척이나 동거인의 수에 대한 정보 역시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부모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을 1명으로 설정하였고 친척 등의 동거인의 수는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분석의 가구원수는 실 가구원수보다 과소 추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구의 경제적 수준은 가구의 월소득이 가구원수별로 설정된 2010년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빈곤가구(=1)로 측정하였다. 가구원수의 과소추계로 인해 빈곤가구의 비중 역시 과소 추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② 부모 교육수준과 양부모 여부

부모의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의 5개 구간으로 측정되었으나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으로 축약하여 사용하였으며 부와 모의 교육수준 모두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부나 모가 없는 경우 교육수준에 결측이 다수 발생하여 부나 모가 없는 경우를 ‘0’, ‘고졸 이하’를 ‘1’로, ‘대졸 이상’을 ‘2’로 측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부모가 양부모인지 여부를 측정하였는데, 양부모인 경우를

'1'로 하였고 한부모 또는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를 '0'으로 하였다.

③ 거주지역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에 도시와 농어촌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변수는 없고, 하위 주소로 읍/면/동 구분이 존재한다. 군부 밑의 읍면은 농어촌 지역으로, 시/구 밑의 동은 도시 지역 거주로 보아 읍 또는 면에 거주할 경우를 '1'로, 동 거주를 '0'으로 측정하였다.

(5) 양육방식

원칙도는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총 43문항)로 원칙도에서는 부와 모 각각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나, 부모에 대한 질문으로 수정한 후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문항 중 방임과 처벌에 관한 문항은 제외하여 감독(3문항), 애정(4), 비일관성(3), 과잉기대(4), 과잉간섭(4) 및 합리적 설명(3)의 6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다.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수준이 높도록 역점수화하였다. 하위 영역 각각의 신뢰도는 감독 0.731, 애정 0.827, 비일관성 0.609, 과잉기대 0.660, 과잉간섭 0.632, 합리적 설명 0.752 이다.

(6) 기타 통제변수

아동의 기본적 특성으로서 성별과 학년을 통제변수로 모델에 포함시킨다. 성별은 '여성'을 '1', 남성을 '0'으로 측정하였고, 학년은 초4와 중1 패널을 통합하였으므로 중1인 경우를 '1'로, 초4인 경우를 '0'으로 하였다.

4.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에 주요 변수들의 사례수와 평균 혹은 백분율, 표준편차를 제시하였고, 마지막 칸에는 다중 대체 이전의 결측치 비율과 다중대체된 20개 자료의 평균 혹은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다문화 아동의 비율은 1.42%로 초 4 16.12%, 중1 1.25%로 초 4에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부분의 변수에서 결측치 비율은 1% 미만으로 적었으나, 가구의 빈곤여부의 경우 5.82%가 결측되었고 빈곤가구 비율이 10.41%에서 다중대체 이후 10.59%로 다소 증가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 특히 모의 교육수준의 결측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다중대체 전후 비중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주요 변수인 학교생활 적응, 자아탄력성 및 양육방식의 왜도는 $-0.815 \sim 0.109$, 첨도는 $-0.392 \sim 0.430$ 으로 정규분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아동만으로 살펴보아도 왜도 $-0.739 \sim 0.300$, 첨도는 $-0.800 \sim 0.383$ 으로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표 1> 분석 자료의 기술통계

변수명	변수측정	사례수	평균 /백분율	표준 편차	다중대체		
					결측 비율 ¹⁾	평균 /백분율 ²⁾	
학교생활 적응	4점척도 ³⁾	4728	1.95	0.43	-	-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정=1	4728	1.42		-	-	
아동 성별	남성=0, 여성=1	4728	49.63		-	-	
중학생 여부	초4=0, 중1=1	4728	51.69		-	-	
자아탄력성	4점척도	4726	1.97	0.47	0.04	1.97	
가족구조	양부모가정	양부모가정=1	4723	88.12		0.11	88.12
	부 교육수준	아빠없음=0	4706	7.10		0.47	7.07
		고졸 이하=1		41.16			41.23
	모 교육수준	대졸 이상=2		51.74			51.70
		엄마없음=0	4692	5.58		0.76	5.54
		고졸 이하=1		54.06			54.15
	대졸 이상=2		40.36			40.31	
경제적 수준	빈곤여부	(가구소득<=최저생 계비) =1	4453	10.41		5.82	10.59
거주지역	동=0, 읍면=1	4726	11.88		0.04	11.87	
양육 방식	감독	4점척도	4725	2.26	0.65	0.06	2.26
	애정		4726	2.15	0.66	0.04	2.15
	비일관성		4724	1.40	0.73	0.08	1.40
	과잉기대		4726	1.59	0.68	0.04	1.59
	과잉간섭		4726	1.43	0.68	0.04	1.43
	합리적 설명		4725	1.98	0.70	0.06	1.98

주: 1) 결측치 비율, 2) 다중대체된 20개 자료의 평균 혹은 백분율. 나머지 사례수는 다중대체 이전의 결과치. 모든 자료는 기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3) 모든 4점척도는 1='매우 그렇다'~ 4='매우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음.

2) 다문화-비다문화 아동 간 학교생활적응 차이 추정

(1) 다문화/비다문화 아동 간 평균 비교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비다문화 가정 아동 특성의 평균 비교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이는 다중대체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이다. 다문화 아동과 비다문화 아동의 평균적인 학교생활적응을 비교한 결과 다문화 아동의 평균은 1.77, 비다문화는 1.96으로 다문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더 낮았다.

학교생활적응 이외의 다른 특성들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 아동의 성별은 여성이 40.8%로 비다문화 49.76%에 비해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문화 가정에서 여아의 비중이 유독 높을 이유는 없으므로, 이는 적은 사례수로 인한 선택 오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년구성에 있어서는 다문화 아동의 경우 초4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다문화 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문화 아동 중 여성보다 남성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는데(남

성 평균 0.92, 여성 1.99), 이는 다문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평균을 낮춰 비다문화 아동과의 차이를 과대 추정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에 반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이 중학생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기 때문에(초등학생 평균 2.10, 중학생 1.82) 높은 초등학생 비율은 학교생활적응 차이를 과소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⁴⁾

이외에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문화아동이 비다문화 아동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가족 및 부모의 특성에서는 다문화 아동의 부모의 저학력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 아동 가정의 빈곤율은 29.71%로 비다문화 10.14%에 비해 두 배에 달했다. 본 연구의 빈곤율이 과소 추계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문화 가정의 빈곤율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며, 거주지역 역시 읍면 지역 비중이 비다문화 아동에 비해 매우 높았다(다문화 29.79%, 비다문화 11.72%). 양부모 가정의 비율은 다문화 아동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다문화 90.01%, 비다문화 88.09%). 양육방식에 있어서는 긍정적 양육방식에 해당되는 하위 영역인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에서는 다문화 아동의 점수가 낮고, 부정적 하위영역인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에서는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2> 다문화/비다문화 아동 특성 비교(평균 및 백분율)

변수명	다문화	비다문화	차이검증 ¹⁾ 확률
사례수	65	4,663	-
학교생활 적응	1.77	1.96	0.004
아동 성별(여성 비율)	40.80	49.76	0.186
중학생 여부	45.25	51.78	0.337
자아탄력성	1.83	1.97	0.031
가족구조			
양부모가정	90.01	88.09	0.676
부			
아빠없음	3.74	7.15	0.0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69.60	40.74	
대졸 이상	26.66	52.10	
모			
엄마없음	6.37	5.57	0.679
교육수준			
고졸 이하	59.46	53.98	
대졸 이상	34.17	40.45	
경제적 수준			
빈곤여부	29.71	10.14	0.000
거주지역			
읍면	22.79	11.72	0.007
양육			
감독	2.10	2.26	0.078
애정	1.97	2.15	0.020
비밀관성	1.56	1.40	0.117
방식			
과잉기대	1.60	1.59	0.941
과잉간섭	1.59	1.43	0.117
합리적 설명	1.82	1.98	0.070

주: 1) 연속변수는 t-test p-value, 더미변수는 Pearson Ch2 p-value를 제시함

4) 학교생활적응 이외에도 자아탄력성(초등 평균 2.02, 중학생 1.92), 빈곤비율(초등 8.9%, 중등 11.8%) 등에서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은 사례수 등으로 인해 통합적인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연령에 따른 다문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는 중요한 후속 연구주제로 남겨둔다.

(2)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 비교

다음 단계로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두 집단 간 학교생활 적응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 집단 간 사례수의 차이로 인한 선택 편향은 OLS 회귀분석을 통해서도 적절하게 보완되는 데에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아래의 다중회귀분석은 최종적인 매칭 적용방법과의 비교를 위한 사전 분석에 해당된다. OLS 회귀분석에는 다중대체를 적용한 20개의 자료가 활용되었고, 이를 통합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의 [모델 I]은 다문화 여부와 함께 성별과 학년(중학생 여부), 자아탄력성 변수로 구성하였다. 모든 변수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단순 평균비교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다문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이 비다문화 아동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회귀계수 -0.130, p-value=0.002).

<표 3>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다중회귀분석 (N=4728)

변수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β	std. err	β	std. err	β	std. err
다문화 여부	다문화=1	-0.130 **	0.041	-0.083 *	0.039	-0.095 *	0.039
성별	여성=1	0.075 ***	0.010	0.052 ***	0.009	0.053 ***	0.009
중학생 여부	중학생=1	-0.234 ***	0.010	-0.189 ***	0.010	-0.194 ***	0.010
자아탄력성		0.455 ***	0.010	0.342 ***	0.011	0.349 ***	0.011
부의 교육수준	고졸 이하			0.010	0.044		
(기준:아빠없음)	대졸 이상			0.059	0.044		
모의 교육수준	고졸 이하			0.040	0.043		
(기준:엄마없음)	대졸 이상			0.065	0.044		
가족구조	양부모=1			0.043	0.045		
경제적 수준	절대빈곤=1			-0.009	0.017		
거주지역	읍면=1			-0.034 *	0.014	-0.044 **	0.014
양육방식	감독			0.109 ***	0.008	0.117 ***	0.008
	애정			0.099 ***	0.010	0.109 ***	0.009
	비일관성			-0.018 *	0.008	-0.020 **	0.007
	과잉기대			-0.004	0.009		
	과잉간섭			-0.020 *	0.009	-0.024 **	0.008
	합리적 설명			0.013	0.009		
상수		1.146 ***	0.027	0.816 ***	0.050	0.910 ***	0.028
adjusted R2		0.374		0.465		0.455	

주) 1) * : p<.05, ** : p<.01, *** : p<.001, 2) 다문화가정 n=65, 비다문화가정 n=4,663

[모델 II]는 [모델 I]에 포함된 변수와 함께 가족 및 부모 특성 변수, 양육방식 하위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델이다. 모델의 설명력은 수정 R²이 [모델 I] 0.374에서 [모델 II] 0.465로 증가하였고, 다문화/비다문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는 [모델 I]에 비해 감소하였으나(회귀계수 -0.083,

p-value=0.031), 여전히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양부모 여부 및 가구의 빈곤여부와 같은 변수들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III]은 [모델 II]에서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변수만으로 구성된 모델이다. [모델 III]을 구성한 이유는, 이후 매칭 방법을 적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할 경우, 사례수가 감소하여 많은 변수를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보다 간결한 모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모델 III]에서도 두 집단간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3) 매칭을 통한 다중회귀분석

마지막 분석 단계는 다문화 아동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비다문화 아동을 매칭을 통해 선별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매칭된 사례를 활용한 회귀분석에 앞서 매칭의 결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매칭 사례 추출에는 앞서 [모델 II]에 포함된 변수를 모두 활용하였고, 1:1로 매칭을 수행했다. 아래 <표 4>는 다중대체 20개 자료 중 하나의 매칭 결과로 매칭 이전과 이후 변수의 상태를 비교해 제시한 것이다.

<표 4> 매칭 결과 예시

		매칭 이전	매칭 이후			
자아 탄력성	다문화 평균	1.830	1.830	성별	0.408	0.408
	비다문화 평균	1.970	1.886		0.498	0.405
	std mean difference	-28.792	-11.543		-18.220	0.592
	t-test p-value	<2.22e-16	< 2.22e-16		<2.22e-16	0.012
	KS statistic	0.139	0.108			
양육 방식 : 감독	다문화 평균	2.104	2.104	중학생 여부	0.452	0.452
	비다문화 평균	2.261	2.119		0.518	0.455
	std mean difference	-23.533	-2.207		-13.126	-0.503
	t-test p-value	<2.22e-16	0.000		<2.22e-16	0.183
	KS statistic	0.108	0.046			
양육 방식 : 애정	다문화 평균	1.969	1.969	거주 지역	0.228	0.228
	비다문화 평균	2.154	2.069		0.117	0.228
	std mean difference	-30.012	-16.234		26.411	0.000
	t-test p-value	<2.22e-16	<2.22e-16		<2.22e-16	1.000
	KS statistic	0.185	0.108			
양육 방식 : 비일관 성	다문화 평균	1.559	1.559			
	비다문화 평균	1.404	1.479			
	std mean difference	21.557	11.168			
	t-test p-value	<2.22e-16	<2.22e-16			
	KS statistic	0.079	0.062			

자아탄력성의 매칭 이전 평균은 다문화 1.830, 비다문화 1.970으로 0.140의 차이를 갖는데, 매칭 후에는 평균차이가 0.056으로 감소하였다. 표준화 평균차(standardized mean difference)는 두 집단의 평균차를 표준편차로 나누어준 값으로, 매칭 이전 -28.792에서 -11.543으로 절대값이 감소하였다. t-test 결과 매칭 후에도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Kolmogorov-Smirnov (KS) 통계치는 감소하여 두 집단의 분포 차이가 줄어든 것이 확인된다. KS 값은 두 집단의 누적 분포 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수치의 감소는 집단간 차이가 매칭을 통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다른 변수들에서도 매칭 이후 두 집단의 차이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매칭을 통해 추정된 다문화 아동 여부의 효과는 $-0.122(\text{std err } 0.061, p\text{-value}=0.022)^5$ 이다. 이는 매칭 이전의 평균차 $-0.19(=1.77-1.96)$ 에 비해 집단간 차이가 적게 추정된 것이고 매칭 이전 회귀분석(모델 II)의 추정치인 -0.083 보다는 큰 차이이다.

매칭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공변량이 균형을 이룬 것은 아니므로 추가적인 통제를 위해 매칭된 사례만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앞서 매칭 이전 수행한 OLS 추정 결과와 함께 아래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 매칭 전후 회귀계수 비교

변수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매칭 이전	매칭 이후	매칭 이전	매칭 이후	매칭 이전	매칭 이후
다문화 여부	다문화=1	-0.130 **	-0.106	-0.083 *	-0.083	-0.095 *	-0.094
성별	여성=1	0.075 ***	0.201 **	0.052 ***	0.131	0.053 ***	0.144 *
중학생 여부	중학생=1	-0.234 ***	-0.310 ***	-0.189 ***	-0.201 **	-0.194 ***	-0.223 **
자아탄력성		0.455 ***	0.533 ***	0.342 ***	0.244 **	0.349 ***	0.262 **
부 교육수준 (기준:아빠없음)	고졸 이하			0.010	-0.169		
	대졸 이상			0.059	0.033		
모 교육수준 (기준:엄마없음)	고졸 이하			0.040	-0.025		
	대졸 이상			0.065	-0.153		
가족구조	양부모=1			0.043	0.092		
경제적 수준	절대빈곤=1			-0.009	-0.035		
거주지역	읍면=1			-0.034 *	0.000	-0.044 **	-0.037
양육방식	감독			0.109 ***	0.185 **	0.117 ***	0.181 **
	애정			0.099 ***	0.213 *	0.109 ***	0.206 **
	비일관성			-0.018 *	0.060	-0.020 **	0.009
	과잉기대			-0.004	-0.062		
	과잉간섭			-0.020 *	-0.033	-0.024 **	-0.030
	합리적 설명			0.013	-0.023		
상수		1.146 ***	0.960 ***	0.816 ***	0.839 *	0.910 ***	0.685 ***

주 1) * : $p<.05$, ** : $p<.01$, *** : $p<.001$, 2) 매칭 이전 사례수=4,728, 매칭 이후 사례수=127

5) ATT 추정 결과는 다중대체된 20개 자료의 ATT 추정치를 Rubin(1987)이 제시한 방법에 의거하여 통합한 것이다.

매칭 이전, 다문화 아동과 비다문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차이는 모든 모델에서 유의하였으나 매칭을 적용하여 공변량을 최대한 일치시킨 후 분석한 결과, [모델 I]에서는 매칭 이후 회귀계수의 크기가 감소하고(-0.130→0.106), 매칭 이후에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변수를 통제한 [모델 II]와 [모델 III]에서는 매칭 전후 계수의 크기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매칭을 통해 두 집단 간 성별과 중학생 여부, 자아탄력성과 양육방식 등의 공변량의 균형을 이룬 결과, 다문화/비다문화 아동 간에 학교생활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5. 결론

다문화가정은 비다문화가정보다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나거나 성장하면서 가정 내 이중문화에 적응하고 가족 내 문화와 가족 외 한국사회에서의 문화 차이를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가야 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비다문화가정의 자녀보다 더 많은 사회적 도전을 경험하고 극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많은 연구들이 다문화가정이 당면하는 복잡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전제로 실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다문화가정은 자녀의 성장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가?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는 학교생활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가?

본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된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의 전제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된 연구이다. 즉,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비다문화가정 자녀와 비교했을 때 이들의 적응수준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더 나아가 비교대상을 다문화가정 자녀의 특성과 유사한 자녀로 대비했을 때, 실제 두 집단 간의 적응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질문을 다루기 위해 공개 데이터로는 국내 유일하게 다문화가정 자녀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인가정(비다문화) 자녀와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수준과 일반적으로 아동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부모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초분석을 통해 집단 간 평균비교를 실시한 결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이 비다문화가정 자녀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은영(2009), 김아영과 김수인(201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생활적응의 평균 비교를 수행한 결과이다. 또한 양육방식에 있어서도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긍정적인 양육방식의 영역인 애정, 합리적 설명, 감독 영역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고 반대로 부정적인 양육방식의 영역인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에서는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이는 즉,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임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하지만 역시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히 다문화가정 자녀의 적응과 부모의 양육방식이 부정적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외, 가족의 특성에서 역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다문화가정의 절대빈곤 비율이 더 높았고, 부모의 학력수준 역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둘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다문화가정 여부는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다른 부모와 개인의 특성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는 비다문화가정 자녀보다 학교생활적응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들이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는데(신효선, 2007; 박계란·이지민, 2010), 즉, 긍정적 양육방식은 학교적응 수준을 증가시켰고 반대로 부정적 양육방식의 하위 영역인 비밀관성과 과잉간섭은 적응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존 연구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취약성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 자녀의 특성을 매칭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앞서 매칭 이전에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로, 실제 자녀의 성별, 거주지역, 학년, 자아탄력성,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특성이 다문화 아동과 유사한 비다문화 아동과 다문화 아동을 비교했을 때에는 다문화가정 여부가 학교생활적응수준과 무관한 것임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는 평균 비교와 다중회귀분석에서의 학교적응의 차이가 비교집단의 사례수로 인한 선택편의와 평균으로의 회귀 등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비교 집단의 사례수로 인한 매칭 전후의 결과 차이는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물질적 빈곤경험 차이를 검토한 이승호(2012)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 바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문화/비다문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의 차이는 다문화가정 여부가 아니라 자아탄력성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양육태도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자아탄력성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모두의 건강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이들의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키는데 개입의 초점을 두어야 하며, 아동·청소년 개인에 대한 접근을 넘어 이들 가족까지 개입을 확대하여,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더욱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결과는 이전까지 일부 기정사실 혹은 전제로 이해되어온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취약성 논의 자체의 문제점을 확인시켜준다. 실제 다문화가정 내 자녀가 심리·정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취약하지 않다는 결과는 국내외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음에도(노충래·홍진주, 2006; 전경숙, 2008; 이아름, 2012; Tizard and Phoenix, 1995) 불구하고 이들의 취약성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Beiser(2005:32)은 이런 논의를 “병든 패러다임 효과(sick paradigm effect)”라 주장하며, 이는 이민자들을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취약하여 사회적 보호와 개입이 필요한 집단이라 간주하는 병리적 관점이라 설명한다. 물론 이런 관점이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이민자와 소수민족의 권리와 욕구를 보장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정책 및 서비스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집단 간 비교에서 나타났듯이 다문화 가정과 그 아동들은 비다문화 가정에 비해 부모의 학력수준이 낮고, 더 빈곤하며 자아탄력성이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다문화가정에서 독특하게 발생하는 현상인지, 학력 수준이 낮고 빈곤한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서 공통

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구분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문화 가정의 취약성에 근거하여 불과 5~6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서비스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동정적인 관점(sympathetic)”(Hsia, 2007:37)은 종종 대상 집단을 우리가 아닌 “그들(others)”로 설정하고 취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낳고, 그들은 우리가 될 수 없고 우리는 그들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다문화사회는 문화의 다양성을 존재하는 것에서부터 다양한 인종·민족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다문화가정 정책 및 실천현장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은 사회와 분리되어 특별집단으로 취급되고 관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을 위한 서비스지원센터가 따로 존재하며,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역시 비다문화 가정과 분리되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 학습지원서비스 등이 각 지자체에서 따로 기획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역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은 따로 분리되어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다문화가정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관심과 제도가 의도치 않게 이들을 우리와는 다른 ‘그들’로 분리하여 한국사회의 영원한 주변인으로 머물게 하지는 않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사회로서의 발돋움을 위해 사회 각계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정책부터 실천까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서비스와 개입방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 노력의 산물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다문화가정을 위한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마련되고 제공되고 있다. 변화와 맞물려 다문화가정과 구성원에 대한 연구도 풍부하게 축적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현재까지 국내 다문화가정 연구에서 팽배한 부정적 관점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연 다문화가정이 현재 논의되는 것과 같이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문제되는 취약집단인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이런 관점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연구로써, 다문화가정 자녀와 비다문화가정 자녀를 비교 연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또한 분석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가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유사한 특성을 가진 비다문화가정 자녀와 비교했을 시, 특별히 취약하지 않은 집단임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자녀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가 다문화가정 자녀인가가 아니라 자녀의 자아탄력성과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여를 알리는 감독과 애정이라는 결과는,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자녀를 중심으로 분리되어 기획되고 진행되는 프로그램 및 개입보다는 비다문화와 다문화가정자녀와 그 가족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통합 프로그램 및 개입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결과는 향후 다문화가정 연구에 있어 병리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보다 면밀히 이들의 적응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현재까지 다문화가정을 사회 다른 가족과 분리하여 지원하는 다문화가정지원 정책 및 서비스 방향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매칭 분석방법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와 비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비교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동시에 연구 내용 및 분석방법에 있어 여러 제한점을 가진다.

먼저,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을 활용한 연구로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표성 있는 아동·청소년 표본을 확보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이와 반대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표본의 수가 절대적으로 작고, 대표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더 나아가, 다문화가정 자녀 표본 수가 작은 문제로, 실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모델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다문화가정 자녀의 낮은 적응 수준이 빈곤, 가족구조, 사교육 여부 등 여러 환경적 요인과 관련이 있는지 규명하지 못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표본 수를 확대하여 자녀의 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적응에 있어 또 하나 주요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는 차별 및 소외 경험에 대해 추가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실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차별경험을 경험하고 학교에서 소외나 왕따 등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여성가족부, 2013), 이런 경험이 이들의 심리사회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김혜미 외, 2011)을 고려할 때 이런 경험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런 차별경험이 비단 다문화가정 자녀들만이 경험하는 문제가 아니며, 한부모가정 및 빈곤가정 자녀들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문제임을 감안할 때, 아동·청소년의 적응을 이해하는데 있어 이를 포함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왜 긍정적인 측면만이 아동·청소년에게 중요하게 지각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의 양육태도 변수는 아동이 '지각하는' 태도로 조사되었는데, 실제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지각하는 경향이 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여부를 단순히 다문화가정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에 따라 처리하여, 실제 다문화가정의 구체적인 문화적 특성(외국인 부/모의 출신국가, 어머니의 거주기간/언어실력 및 자녀 스스로의 국외 거주 경험 및 한국 거주기간/언어실력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고 통제된 상태에서 비교집단과 비교하여 적응수준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주장하는 부모의 이중문화와 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이것이 자녀의 적응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지 탐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부자·김은혜·노충래, 2012, “한부모가정의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부자-모자가정의 비교”, 『학교사회복지』, 23: 29-50.
- 고유미·이정윤, 2009,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요인”, 『청소년상담연구』, 17(1): 49-63.
- 김갑성, 2008, “한국 내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18: 58-59.

- 김아영·김수인, 2011, “여성국제결혼가정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관련 심리적 특성 비교”, 『교육학연구』, 25(4): 853-873.
- 김영춘·이관식, 2013, “다문화가정 아동의 가족기능,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3(1): 21-38.
- 김영춘·정민숙, 2012,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3: 51-70.
- 김은영, 2009, “자녀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비교연구”,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식·문혜진, 2012, “이사와 전학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50(3): 277-302.
- 김혜미·원서진·최선화, 2011,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사회복지연구』, 42(1): 117-149.
- 남상아·백지숙, 2011, “다문화가정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9(1): 3-12.
- 노충래·홍진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 사회 적응실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8.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교생활적성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박계란·이지민, 2010,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변인들간의 관계구조분석”, 『한국생활과 학회지』, 19(6): 981-991.
- 박명숙·송사리,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비행경험과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3: 155-183.
- 변은주·심혜숙, 2010,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4): 1753-1765.
- 손병돈, 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축 효과 분석”, 『보건사회연구』, 31(4): 229-257.
- 손보영·김수정·박지아·김양희, 2012,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가 초기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3(1): 149-173.
- 신효선,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환경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은미, 2007,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2013, 『2012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보도자료』, 여성가족부.
- 오동제·전성일·장환일, 1993,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년의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2(6): 896-903.
- 유성경·심혜원,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 윤미아, 2008,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은선경, 2010,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족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3: 37-74.
- 이삼식·최효진·박성재, 2010,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석형, 2008,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신학과 목회』, 30: 357-381.
- 이승호,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의 물질적 빈곤 감소 효과 분석”, 제5회 한국복지패널학술대회 자료집, 477-492.
- 이아름, 2012, “Effects of perceived paternal parenting styles and communication patterns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comparison between multicultural and non-multicultural families”,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 2007, “국제 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8,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응요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3(1): 79-101.
- 이지애, 2007,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비교연구-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경숙, 2008, “경기도 지역의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 조사: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6(1): 167-185.
- 정화실, 2009, “초등학생의 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차유립, 2000, “아동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성보, 2010,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분석”,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1a,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4(2): 105-130.
- _____, 2011b,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구조분석”, 『중등교육연구』, 59(2): 261-287.
- 최성보·이현철·김경식, 2011,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1: 1-19.
- 최옥희·김용미, 2008,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과 학업성취 차이에 대한 연구”, 『아동교육』, 17(2): 275-285.
- 하명선·이순복, 2009,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8(3): 247-258.
- 하영희, 2003,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4(4): 29-40.
- 한국교육개발원, 2008, 『다문화가족 교육실태 연구: 국제결혼가족을 중심으로』.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홍정미, 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성동·박은혜,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4): 123-145.
-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1): 56-95.
- Beiser, M., 2005, “The health of immigrants and refugees in Canada”,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96(2): 30-46.
- Block, J. H., and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entral and ego-resiliency in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The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Hillsdale, New Jersey: Erlbaum.

- Block, J., and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Darling, N., 2005,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adolescent adjustment: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findings ",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5): 493-505.
- Dehejia, R. H., and Wahba, S., 2002, "Propensity score-matching methods for nonexperimental causal studi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4(1): 151-161.
- Desforges, C., and Aboucharr, A., 2003, "The impact of parental involvement, parental support and family education on pupil achievement and adjustment: A literature review",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 Guo, S., and Fraser, M. W., 2010, *Propensity Score Analysis : Statistical Methods and Applications*, Los Angeles: SAGE.
- Hanson, T. L., and Austin, G., 2003, *Student health risks, resilience, and academic performance in California: Year 2 Report*, Los Angeles, CA: West Ed.
- Haskett, M. E., Nears, K., Ward, C. S., and McPherson, A. V., 2006, "Diversity in adjustment of maltreated children: Factors associated with resilient functioning",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 796-812.
- Hsia, H. C., 2007, "Beyond victimization: The empowerment of marriage migrants in resisting globalization", Paper presented at the Institute for Gender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November 30, 2007.
- Kurdek, L. A., and Fine, M. A., 1994, "Family acceptance and family control as predictors of adjustment in young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 1137-1146.
- Nakashima, C. L., 1992, "An invisible monster: The creation and denial of racially mixed people in America", In M. P. P. Root(Ed.) *Racially mixed people in America*, Newbury Park, CA: Sage.
- Rubin, D. B., 1987, *Multiple Imputation for Nonresponse in Surveys*, New York: J. Wiley & Sons.
- Scales, P. C., Roehlkepartain, E. C., Neal, M., Kielsmerier, J. C., and Benson, P. L., 2006., "The role of developmental assets in predicting academic achievement: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29(5): 692-708.
- Schaller, A., Rocha, L. O., and Barshinger, D., 2007., "Maternal attitudes and parent education: How immigrant mothers support their education despite their own low levels of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4(5): 351-356.
- Sekhon, Jasjeet S., 2011, "Multivariate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software with automated balance optimization: The matching package for R.",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42(7): 1-52.
- Shackford, K., 1984, "Interracial children: Growing up healthy in an unhealthy society", *Interracial books for children bulletin*, 15: 4-6.
- Shek, D. T., 1997, "Family environmen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school adjustment, and preblem behavior: a pioneer study in a chinese contex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8(1): 113-128.
- Stanley, L. R., Comello, M. L. G., Edwards, R. W., and Marquart, B. S., 2008, "School adjustment in rural and urban communities: Do students from Timbuktu differ from their inner city slicker pee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2): 225-238.

- Steinberg, L., Mounts, N. S., Lamborn, S. D., and Dornbusch, S. M., 1991, "Authoritative parenting and adolescent adjustment across varied ecological nich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 19-36.
- Tinklin, T., Croxford, L., Ducklin, A., and Frame, B., 2001, *Gender and pupil performance*, Edinburg: Scottish Executive Education Department.
- Tizard, B., and Phoenix, A., 1995, "The identity of mixed parentage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6: 1399-1410.
- Whaley, A. L., and Francis, K., 2006, "Behavioral health in multiracial adolescents: The role of Hispanic/Latino ethnicity", *Public Health Reports*, 121(2): 169-174.
- Williams, R. F., 2009, "Black-white biracial students in american schools: a review of the literatur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9(2): 776-804.

School Adjustment: Compari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Children of Non-Multicultural Families

Kim, Hyeme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Moon, Heyjin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adjustment has been a popular topic among scholars in multicultural family studies, and they commonly report poor adjust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However, without subjects for comparison, these findings may be considered premature. This study investigated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by comparing their adjustment level to that of children from families with Korean parents. By using the matching procedure, this study examined whether children's multicultural family background attributes to their school adjustment with children's observable characteristics paired and matched. For the analyses, the first and fourth wave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data were used. When the school adjustment level was examined before the matching procedure, the school adjustment level was indeed lower among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family status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school adjustment. However, when two groups were paired and matched using matching, the family background had no significant effect, indicating that school adjustment is not predicted by their multicultural family status.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are also discussed in the paper.

Key words: school adjustment,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families, children and youth, matching

[논문 접수일 : 13. 07. 23, 심사일 : 13. 08. 06, 게재 확정일 : 13. 10. 04]